

니콜라이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최용준 한동대 교수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biblical worldview and transformative work of Nikolaj Frederik Severin Grundtvig (1783 - 1872), who profoundly shaped Denmark. Grundtvig was a prominent Danish writer, theologian, Lutheran pastor, poet and hymnist, nationalist, historian, folklorist, politician, educator, and philosopher. His multifaceted career is comparable to that of Abraham Kuyper (1837 - 1920) in the Netherlands. As a social entrepreneur and reformer, Grundtvig helped Denmark, then facing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emerge as one of the world's happiest and most advanced nations. Grounded in a biblical worldview, he inspired a new nationalist movement in the late 19th century, underpinned by his deep spirituality and extensive study of national literature. His influence significantly shaped modern Danish national consciousness. Moreover, emphasizing education for life and freedom, he introduced a new educational paradigm—the *Folkehøjskole* (folk high school)—and empowered countless ordinary citizens through learning. He also played a key role in transforming Denmark from a medieval serf society into a modern civil society through land reform. This paper examines Grundtvig's biblical worldview and transformative contributions and concludes by discussing their potential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ey Words: Grundtvig, biblical worldview, *Folkehøjskole*, land reform, freedom

I. 서론

니콜라이 프레데릭 세베린 그룬트비(Nikolaj Frederik Severin Grundtvig, 1783 - 1872)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작가, 신학자, 목회자, 찬송가 작사가, 시인, 민족운동가, 역사가, 민속학자, 정치가, 저술가, 교육학자, 철학자이다. 그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 - 1920)에 비견될 만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덴마크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Graves, 2010).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을 사랑하자”라는 신념으로 황폐한 덴마크 농업사회를 근대적 시민사회 및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여, “덴마크 중흥의 국부(國父)”로 불린다. 그렇다면 그의 성경적 세계관은 어떻게 덴마크 사회의 변혁을 이끌었는가?

그룬트비는 동화 작가 안데르센(H. C. Andersen)과 철학자 키르케고르(S. Kierkegaard)와 더불어 덴마크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는 그가 성경적 영성과 국가 문헌 연구를

결합하여, 19세기에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을 촉발하였고, 교육과 교회,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Hall, Korsgaard & Pedersen, 2014).

그러나 그의 방대한 저작은 언어적 장벽과 사상적 난해함으로 인해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그의 작품 중 포괄적인 독일어판 3권과 영어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가장 중요한 전집으로는 베그트루프(Holger Begtrup, 1859 - 1937)이 편집한 10권의 *그룬트비 선택*(*Grundtvigs udvalgte Skrifter*, 1909)이 있다. 또한, 그의 저서들은 요한슨(Steen Johansen)이 편집한 *그룬트비 도서*(*Bibliografi over N.F.S. Grundtvigs Skrifter, I-IV*)에 수록되어 있으며(Johansen, 1948 - 54), 영어 번역본으로는 브래들리(S.A.J. Bradley)가 편역한 *그룬트비 생애 회상*(*N.F.S. Grundtvig - A Life Recalled*, 2008) 등이 있다(Broadbridge, 2011, 2015, 2018, 2019, 2021, 2023; Abrahamowitz, 2000; Allchin, 1997; Reich, 2000; Johansen, 1948 - 54).

국내 연구 또한 정해진(2015)의 학위 논문과 일부 번역서(미즈루, 2014; Dam, 2009) 및 관련 기사들이 있으나, 그의 성경적 세계관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그룬트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그의 성경적 세계관의 형성과 특징을 규명한다. 둘째, 그의 세계관이 덴마크 사회의 교육 개혁, 토지개혁, 민족 정체성 회복 및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변혁의 경험이 현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탐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은 어떠한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가? 둘째, 그의 세계관은 덴마크 사회 변혁의 구체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셋째, 그룬트비의 사상과 실천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떠한 교훈을 제공하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그룬트비의 주요 저술과 설교, 찬송가 등 1차 자료를 검토한다. 둘째, 기존 해외 연구와 국내 연구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그의 사상과 사역을 교육학, 정치학, 및 신학적 관점에서 교차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가 제시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과 현대적 의의를 밝히 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을 단순한 역사적·교육사적 사례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덴마크의 학문, 교육, 정치, 사회 전반을 어떻게 변혁했는지 원리를 규명하며, 신앙과 학문의 통합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

1. 그룬트비의 생애와 사역

그룬트비는 덴마크에서 가장 큰 섬인 셸란섬(Sjælland) 남부의 작은 마을 우드비(Udby)에서 루터교 목회자 요한 그룬트비(Johan Ottosen Grundtvig, 1734 - 1813)와 캐더린 그룬트비(Catherine Marie Grundtvig)의 아들로 1783년에 태어났다. 그는 신앙적 환경에서 자랐으나, 동시에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접한 북유럽 전설과 역사적 전통의 영향도 받았다(Allchin, 1997). 그는 부모를 따라 3세부터 5세까지는 프로이센왕국(Königreich Preußen)의 수도 베를린(Berlin)에서, 5세부터 6세까지는 스웨덴(Sweden)의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서 생활한 뒤 덴마크로 돌아왔다. 1791년, 8세 때 본토 중부의 티레곳(Thyregod)으로 보내져 펠트(Laurids Svindt Feld) 목사와 함께 거주하며 공부했고, 이 시기에 많은 책을 읽었다. 1798년, 15세부터는 오르후스(Aarhus) 대성당학교(Katedralskole)에서 수학하였고, 1801년, 18세 때 코펜하겐(København)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Abrahamowitz, 2000; Reich, 2000). 대학 시절 그는 아이슬란드어와 북유럽 전설 연구도 시작했으며,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루터교 목사가 되어 고향 교회에서 농민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했다.

1802년, 사촌이자 철학자였던 스테프스(Henrik Steffens, 1773 - 1845)가 독일 관념론자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1775 - 1854)의 영향을 받아 코펜하겐으로 돌아와 강의하였는데 그와 함께 덴마크 시인 윌런슐레거(Adam Gottlob Oehlenschläger, 1779 - 1850)의 초기 시는 그 룬트비히의 문학적 안목을 열어 주었다(Reich, 2000: 35). 1805년, 22세에 그는 덴마크 남부 랑엘란(Langeland)섬의 한 가정에서 교사로 일하며, 3년간 영국의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 1616), 독일의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 - 1805) 및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 - 1814)를 공부했다(Allchin, 1997: 31 - 32). 1808년인 25세에 그는 *북유럽 신화 또는 신화학자가 아닌 교육받은 남성을 위한 에달로어의 관점(Nordens Mytologi eller Udsigt over Eddalæren for dannede Mænd der ei selv ere Mytologer)*을 출판하며 낭만주의적 연구에 전환점을 맞았다. 이어 1809년에 그는 장편 드라마 *북구 영웅적 삶의 몰락(Optrin af Kampelivets Undergang i Nord)*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810년 첫 설교에서 당시 도시의 부패한 성직자들을 비판하고, 3주 후 이를 출판하자 교회 당국은 처벌을 요구했다(Allchin, 1997: 33; Reich, 2000: 48). 그는 영적, 정서적 갈등을 겪었으나 신앙적 각성을 통해 회복하고 고향 교회에서 부친을 도왔다(Allchin, 1997: 33-36). 이러한 경험은 그의 오만함에 대한 신성한 책망으로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북유럽 신화와 낭만적 사상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독일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 - 1546)로부터 강력한 영감을 받아 성경적 신앙을 확립하였다.

그가 30세가 되던 해인 1813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목회 후계자로 지원했으나 거절당했고, 1821년까지 8년간 목회하지 못했다. 1813년부터 1815년까지 그는 스웨덴 정부에 대항하는 노르웨이인을 지원하는 운동도 조직하려고 시도했는데 나중에 그가 덴마크인의 신앙이 약해져 1814년 노르웨이를 잃게 되었다고 설교하자 코펜하겐에서 회중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교구가 없었고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를 금지당했기에 강단에서 물러났다(Reich, 2000: 55-57). 그러나 그는 *로스킬데 리임(Roskilde-riim, 1814)*과 *시대의 필요와 경우에 따른 성경적 설교(Bibelske Proedikener efter Tidens Tarv og Leilighed, 1816)*를 출판하며 루터 정신을 부활시키고, 낭만주의 철학자들을 비판하여 키르케고르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대 영어 영웅 서사시 *베오울프(Beowulf, 1820)*를 덴마크어로 번역함으로써 앵글로 색슨 문학 연구의 길을 열었다. 이 시는 8-11세기 사이 고대 영어로 된,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영웅 서사시로 1010년경에 쓰인 필사본이 유

일하게 전해지고 있다. 길이가 3,183줄에 달하며, 고대 영어로 된 가장 긴 작품으로, 영문학상으로도 중요한 문헌이다. 1816-1819년에는 *단느-비르케*(*Danne-Virke*)라는 저널에 거의 단독 기고자로 참여하며 다양한 글과 시를 발표했다(Allchin, 1997: 39).

1821년, 38세에 그는 셸란섬의 남쪽에 있는 프레스토(Præstø)에 살면서 잠시 설교를 재개했고, 1822년 코펜하겐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왕실의 지원으로 1829-1831년에 영국을 세 차례 방문하여 앵글로색슨 문화를 연구하였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변화를 불러왔으며, 특히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으로 농민을 교육하고 깨우는 새로운 교육학적 패러다임인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는 ‘민중의 대학’이란 뜻이며 영어권에서는 ‘자유 학교’로 표기한다. 그가 영국을 방문한 원래의 목적은 옥스퍼드(Oxford)와 케임브리지(Cambridge) 도서관에 보관된 고대 스칸디나비아인의 원고를 공부하기 위함이었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동안 그는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며 학문을 탐구하는 모습을 특별한 분위기에 큰 감동을 하였다. 그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일종의 공동체로 함께 살며, 식사하고, 운동하며, 차를 마시면서 토론을 즐겼다. 학생들은 교수들의 지식과 학문의 깊이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 그가 더 놀란 것은 교수진 역시 학생들에게 비슷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덴마크 교육 환경과 크게 다른 점이었기 때문이다.

1830년, 두 번째 영국 방문 중 그는 클라라 볼튼(Clara Bolton)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존재와 행복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성찰하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이 인간을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포용함을 깨닫게 되었다(<http://www.jayuskole.net/폴케호이스콜레/그룬트비>). 1832년 그는 목회 허가를 다시 받았고, 1839년부터 코펜하겐에 있는 바르토프(Vartov) 병원 교회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3년간 목사로 섬겼다.

1844년 61세부터 1848-1851년 덴마크 왕국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공국 사이에 일어난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까지 그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보수주의자에서 절대 자유주의자로 발전했고, 1848년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신앙, 언론, 집회, 토지 소유 권리 등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폴케호이스콜레 창설을 통해 국민 생활 개선을 주도했으며, 1849년 헌법 제정에도 참여했다.

그는 1872년 8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글을 쓰고 출판했으며, 바르토프 교회에서 설교를 이어갔다. 그의 설교는 많은 회중의 관심을 끌었고 추종자들이 생겼다. 나아가 그의 찬송집은 덴마크 교회 예배에 큰 변화를 불러왔으며, 정통 루터교의 느린 박자를 국민 시인들의 찬송가로 대체했다. 그는 약 1,500개의 찬송가를 작사하고 번역하여 스칸디나비아의 위대한 찬송가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덴마크 교회용 찬송가*(*Sang-voerk til den Danske Kirke*, 1836-37)에는 창작과 번역된 찬송가가 포함되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독일어 및 영어 등으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졌다.

2. 그룬트비의 역사관

그룬트비는 역사를 단순한 인간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가 드러나는 장으로 이해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역사를 이해하려는 첫 시도로 그는 *맥락으로 본 세계사 연대기의 간*

략한 개념(*Kort Begreb af Verdens Krønike i Sammenhæng*, 1812)을 발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책에서 그는 세계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민족의 흥망성쇠 속에 신적 목적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로부터 비판도 받았고 여러 친구, 특히 역사가인 몰베흐(Christian Molbech)를 잃게 되었다(Abrahamowitz, 2000: 115-117).

3. 그룬트비의 교회관과 개혁

그룬트비의 사상적 발전은 평생 계속되었으며 많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27세이던 1810년, 영적 각성을 통해 더욱 회중적이며 성례전적인 교회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신학자가 아닌 목사라고 불렀으며 각 회중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로 활동하기를 원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스칸디나비아의 세계관에 관한 관심도 평생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그를 북구에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신앙적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1825년 그는 교회의 논쟁에서 중심인물이 되었는데, 그는 성경 해석을 학문적 지식에 한정시키지 않고, 성례전(세례·성찬) 속에 계시가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의 대답(Kirkens Gienmæle, 1825)*이라는 책을 통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헌법, 교리, 예전(Catholicismens og Protestantismens Kirke- Forfatning, Lære og Ritus)*이라는 책을 출판한 코펜하겐 대학 신학 교수 클라우센(Henrik Nicolai Clausen)의 입장을 반박하며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주장했다. 클라우센은 성경이 기독교의 주요 기초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일반 종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체”라고 묘사했다(Allchin, 1997: 105). 이에 대해 그룬트비는 클라우센이 기독교를 하나의 단순한 철학사상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왔고 학자들이 정교화할 이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례식과 성찬식, 즉 살아 있는 성례전 속에서 끊이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역사적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권리에 의문을 제기했다(Grundtvig, 1825, Allchin 1997: 105-106). 그러자 그는 명예 훼손으로 기소되어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1826년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그는 신학적 저술을 계속 출판하였다.

그의 교회관은 여러 신학 저술과 특히 *기독교적 설교 또는 주일의 책(Christelige Prædikener eller Søndags-Bog)*(3권, 1827-30)에서 계속 발전했다. 그는 당시 신학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 성경과 함께 교회와 기독교는 굳게 서서 넘어질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성경을 기독교인이 되는 관문으로 여긴 동시에 당시에 지배적이던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 성경관을 없애고자 했다. 그는 사람이 글보다 우선하며, 따라서 회중이 그의 결정적 초점이었다. 덴마크의 신학자로 그룬트비와 키르케고르 전문가이며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 교수인 홀름(Anders Holm)도 그룬트비가 ‘비교할 수 없는 발견’이라고 불렀던 것은 살아 있고 믿는 회중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식에서 신앙고백 안에 항상 임재하셨음을 강조했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Holm, 2018).

그룬트비는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된 자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국회의원이었을 때

에는 교인이 스스로 사제와 본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회중을 형성할 자유도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권리는 그가 나중에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채택되었고 지금도 덴마크에서 적용되고 있다(grundtvigskforum.dk/grundtvig-i-kirken). 이것은 당시 국가교회였던 덴마크 교회가 관료주의적 제도로 인해 신앙과 교회가 죽은 정통주의로 화석화되어 가는 것을 살아 있는 교회와 신앙으로 개혁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4. 그룬트비의 교육관과 개혁

그룬트비는 당시 덴마크의 경제가 파산된 위기의 해인 1813년부터 조국을 살릴 길은 교육이며 그중에도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당시 덴마크는 모국어를 무시하고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철학이나 관념 위주로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 중심적인 교육이 성행했는데 그는 교육은 글보다 말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대중을 깨우치기 위해 덴마크의 역사와 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서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도록 교육한다면 성장하고 계몽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들을 위한 폴케호이스콜레의 설립을 주장했다. 당시 농민들은 배울 수 있는 수단과 장소가 없었으므로 그는 민중 계몽과 농민 정신 부흥을 목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삶의 지혜를 깨우칠 수 있는, 국민을 깨우치는 교육의 민주화를 제창한 것이다.

그는 인간을 단순한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역사적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지식 암기를 강요한 당시 의무교육을 그는 ‘죽음의 학교’라고 불렀다. 이와 반대로 교육은 삶과 자유를 위한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구현한 것이 폴케호이스콜레였다. 이것을 그는 ‘삶을 위한 학교(*Skolen for livet*)’라고 하면서(Grundtvig, 1838), 학생들은 모국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더불어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조국과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하며 모든 학생이 스스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도록 장려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앙과 민족의식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교육 모델이었다.

나아가 이 학교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단결과 행복을 추구했고 여기서 ‘협동조합’이라는 개념도 나왔다. 당시 덴마크는 농산물을 수입했는데 농민들은 값싼 해외 농산물에 대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경쟁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농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국내 농수산업 시장을 지켜내었고 돼지 사육 농민들이 시작한 축산협동조합 운동도 퍼져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전국 각지에 생겨났고 평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효과는 더욱 커졌다. 덴마크에는 지금도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프리스콜레’와 진로 탐색을 위한 ‘애프터스콜레’, 시민을 위한 ‘폴케호이스콜레’ 등 다양한 학교가 있다(왕보경, 2021).

그룬트비는 소위 ‘죽은 문자’에 의지한 교육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덴마크인은 똑똑하고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보살피고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독립, 고귀한 자부심과 명예, 존엄을 파괴하는 언론의 폭력과 학자의 오만에 대해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미즈루, 김경인, 김형수 역, 2014). 그는 우매

하며 저급하다고 무시되던 민중의 힘을 믿었고, 그 힘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려면 대중이 자유롭게 사회적 발언을 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런 신념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폴케호이스콜레였다. 이러한 부분은 카이퍼가 서민(kleine luyden, 끌라이너 라위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사립학교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최용준, 2025: 63-83)

따라서 그룬트비는 자유롭고 개방된 교육을 강조했다. 이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서로 배우는 기숙 학교다. 전문 지식 중심의 교육을 거부하고 성별·나이·계급·종교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을 추구한다. 이 학교는 특히 시험과 성적 평가 없이 자유롭게 열린 관계와 신뢰에 기초해 ‘생활의 계몽’을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했다(신명직, 2012). 즉 지식 습득을 통해 신분 상승을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배움을 추구했다.

이 학교의 기본 분위기는 처음부터 “기독교적-역사적-시적”이었고, 교수법은 교사의 개성이 결정적이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주요 과목은 덴마크어와 역사, 사회, 세계사와 문학, 수학, 자연과학과 보건 과학, 글쓰기와 산수 등의 기초과목이었고 체육에도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교장과 함께 생활하고 식사를 했으며, 교사와 학생의 공존을 강조했다.

그룬트비의 교육관에는 또 다른 점도 있었는데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고등 교육을 목표로 하는 개혁을 추구했다. 즉 그는 대학이 박학다식한 학자를 양성하기보다 학생들을 사회와 대중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실용적인 기술도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구상은 덴마크 국왕 크리스치안 8세(Christian VIII, 1786-1848)의 통치 기간에 거의 실현될 뻔했으나 아쉽게도 1848년 왕의 죽음과 그 후 국내 정치적 변화로 중단되었다.

그는 또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상징적 교차점인 스웨덴의 예테보리(Göteborg)에 그레이트 노르딕 대학교(Great Nordic University)를 세우는 꿈도 꾸었다. 그의 학교 프로그램의 두 기둥인 삶의 학교(폴케호이스콜레)와 열정의 학교(대학)는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을 목표로 삼았다. 대중 교육은 주로 애국적인 이해의 지평 내에서 가르쳐야 하지만 항상 더 넓은 상호 문화적 전망을 향해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대학은 엄격하게 보편적인, 즉 인도적이고 과학적인 전망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그는 보았다(Bradley, 2008).

그룬트비의 교육관에서 공통 분모는 학교생활에서 자유정신, 시 및 훈련된 창의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혜, 연민, 식별 및 평등과 같은 가치를 장려했으며 시험을 포함한 모든 강박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대신 그는 보편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질서에 따라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것을 옹호했다. 따라서 자유, 협력 및 발견의 정신이 개인과 시민사회 전체에서 불타올랐다(Smith, 1999, 2007, 2011).

1849년까지 덴마크인들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왕에 종속된 백성이었다. 하지만 1849년에 최초의 헌법과 함께 민주적인 정부가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그룬트비도 ‘국민’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반신반의했는데 왜냐하면 1789-1799년의 프랑스 혁명, 특히 1793-1794년 프랑스의 폭력적인 ‘공포정치’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주사회가 덴마크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함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시민을 키우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가 필요하며, 덴마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계몽을 초점으로 삼는 학교에 관한 생각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폴케호이스콜레였다. 이 학교에 대한 그의 기본 생각은 자유롭고,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유를 통해 독립성, 권한 및 책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주장한 매우 급진적인 생각은 대학에 시험이 없어야 하며 기말고사만 없는 것만 아니라 가르침의 전체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보거나 영리하게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고 교사는 시험과 학년에 대한 부담이 없기에 모두 함께 모여 삶과 세계와 역사와 사회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을 의미했고 모든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실천해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진지함을 의미했고 수업시간에 잠을 잘 수도 없으며 체쩍이나 당근도 없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농민과 시민이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을 함께 배우는 장이 되었으며, 덴마크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를 놓았다.

나아가 그에게 자유는 진리를 의미했다. 자유는 정직의 전제 조건이며, 정직 없이는 무엇이 진리인지 논의할 수 없다고 그는 믿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 사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믿었다(grundtvigskforum.dk/grundtvig).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학교 및 교육을 이해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금 이곳의 삶에 빛을 비추는 계몽을 주된 임무로 여겼다. 인생은 교육을 통해 계몽되어야 하며 그래야 인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류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큰 통찰력을 얻고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그는 보았다. 이생에서 사람이 완전한 통찰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가능한 한 깨달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목표를 ‘삶의 계몽’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삶과 글로벌하고 미래적인 삶에 대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공헌하고 발전하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살아 있는 상호 작용에 대해 말하면서 교사와 학생도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하며, 결과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교육은 궁극적으로 주제나 직업과 관계없이 삶의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형성이란 사람을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자기인식에 대한 능력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과정이지 완성품이 아니며 삶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므로 학교는 개인의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에게 자기 통찰력을 줄 수 있고 그가 예정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그는 ‘형성 과정’과 지금 여기에서 ‘삶을 위한 능력’이라고 불렀다(grundtvigskforum.dk/grundtvig-i-skolen).

이러한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당시 유럽 상류사회를 지배하던 라틴어를 거부하고 지역 언어로 밀려났던 덴마크어를 회복시켰으며 신화와 역사를 시로 엮어내 이를 민중과 함께 노래했다. 민중이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구체화한 폴케호이스콜레가 1844년에 덴마크의 뢰딩(Rødning)에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에는 시험이나 졸업장이 없으며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적과 관

계없이 입학할 수 있고 전교생은 수십 명을 넘지 않으며 독서보다 대화를 우선하고, 지식보다는 경험을 강조한다. 교과과정은 덴마크 전통을 현재화하는 과목, 취미와 실용 과목, 생태-환경과 같은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현대적 과제 등 크게 세 분야를 자체적으로 조합한다.

최초의 폴케호이스콜레는 주로 공무원과 부유한 농부들이 등록했기 때문에 다소 귀족적이었다. 하지만 1864년, 덴마크가 2차 슐레스비히 전쟁에서 프로이센에 패하면서 영토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만 하자 이 사건은 덴마크 국민 의식을 강타했고,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되어 전국에 이 학교를 세워 1867년까지 21개교가 문을 열었다. 이 학교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룬트비의 추종자들이었으며 1918년에 이 학교 수는 68개였고 현재는 8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자유 초등학교, 자유 중학교, 예술·공예학교, 여행하는 자유 학교 등이 있는가 하면, 교원양성대학도 있다. 엄연한 사립학교인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나 교육 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간섭받지 않는다. 이처럼 덴마크는 교육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고 대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다. 덴마크가 이렇게 유연하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갖게 된 것은 그룬트비가 매우 혁신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의 교육관에서 핵심은 대안 사회에 대한 창의적, 자율적, 협동적 실천이다.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 학교는 무엇보다 ‘대화와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는 “좋은 귀를 통해서만 정신의 귀가 열린다”라고 말하면서 민중이 자각에 이르도록 하는 매개물 중 하나가 역사와 시라고 보았다. 뛰어난 시인이기도 한 그에게 문자가 아니고 말로 전승된 문학은 민중에게 생의 신비와 존엄을 일깨우는 탁월한 공유재였다. 자국의 역사와 언어를 강조한 그의 교육관은 자칫 국수주의로 비칠 수 있지만, 그는 덴마크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치 독일 치하의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내치지 않은 나라가 덴마크였다. 덴마크의 종교적 관용이 이토록 남다를 수 있던 것은 그룬트비와 이 학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현재 헬싱피르(Helsingør)에 있는 인터내셔널 피플스 칼리지(IPC: International People's College)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전 세계에서 온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하는 덴마크에서 가장 국제적인 학교라는 점에서 폴케호이스콜레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다. 이 학교가 ‘여행하는 자유 학교’ 등을 통해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 학교의 개방성 및 보편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덴마크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토론하며, 경쟁보다는 협동을,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공의 행복을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덴마크가 자랑하는 풍력발전도 폴케호이스콜레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세계 최대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즈(Vestas Wind Systems)와 해상 풍력(Offshore wind)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 A/S)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학교에서 함께 지내며 누리던 레그 고트(leg godt, 즐겁게 논다) 문화로부터 유명한 완구 기업 ‘레고’가 탄생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본다면 그 가 가졌던 교육관과 개혁 운동이 얼마나 덴마크와 세상을 크게 변화시켰는지 짐작할 수 있다.

5. 그룬트비의 문화관과 민족 정체성의 회복

그룬트비의 세계관은 그의 시대에 강력한 흔적을 남겼으며 오늘날 덴마크의 사회와 문화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의 영향력은 예술, 대중 운동 및 노래 그리고 정치적 논쟁의 일부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거의 200년 동안 그의 생각은 가정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예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으며 덴마크의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공헌했다(grundtvigskforum.dk/grundtvig-i-kultur-og-samfund).

특히 그의 문학은 덴마크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1815년에 당시 덴마크의 국립 기록 보관인이자 외스트폴드(Østfold) 대학의 고대 유물 교수였던 토르켈린(Grímur J. Thorkelin, 1752-1829)이 베오울프 서사시의 초판을 출판했는데 그룬트비 자신도 앵글로색슨 문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의 시적 표현에서 여러 결함을 발견했다. 결국, 그와 열띤 토론을 한 후, 그의 작업을 후원했던 덴마크 궁정 마샬 빌로우(Johan Bülow, 1751-1828)는 그룬트비에게 새로운 번역을 제안했다. 이전에는 1805년에 영국의 역사학자 투르너(Sharon Turner, 1768-1847)가 일부만 현대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룬트비는 베오울프를 덴마크어로 번역했다(Grundtvig, 1820). 그는 계속해서 고대 영어와 라틴어로 남아 있는 앵글로색슨족의 광범위한 문헌을 연구했으며 시와 산문 모두에서 북유럽 초기 교회의 영성을 발견하여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고대 기독교 모델과 역사적 사고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코펜하겐의 왕립 도서관과 엑서터(Exeter),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을 세 번에 걸쳐 방문하여 4개의 대본 중 2개의 필사본을 작성했다. 베오울프와 앵글로색슨 문학은 그에게 계속해서 주요 영감의 원천이었으며 그의 작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Bradley, 2006: 110-131). 이처럼 그는 성경적 역사 이해와 문헌 연구를 결합하여 덴마크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했다.

6. 그룬트비의 정치관과 토지개혁

65세이던 1848년, 코펜하겐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룬트비는 1849년까지 절대 왕정을 종식한 제헌의회에 참여했으며 국방의 의무, 신앙,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위하여 지도적 발언과 행보를 이어갔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음 선거에도 당선, 그때부터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도들을 마련해 나갔다. 그 결과 그는 자유, 책임, 공동체라는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덴마크 헌법 제정에 이바지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도 촉진했다.

18-19세기 초 덴마크는 귀족이나 대지주의 대농장(hovedgårde) 중심으로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대지주에게 소작농으로 예속되었다. 이는 사회적 위계질서와 불평등을 고착했고, 농민들은 정치적 권리나 교육 기회에서도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 그룬트비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시민권적, 도덕적, 교육적 권리로서의 토지 소유를 강조했다. 왜냐하면, 농민이 자신의 땅을 소유해야 스스로 존엄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룬트비의 사상은 토지개혁과 맞물려 소농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농업개혁과 연계하여 1788년에 결국 농노제가 폐지되었고 19세기 중반 이후, 정부가 대지주의 땅을 나누어 소농에게 분배했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개혁에 도덕적,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덴마크에 소

농 제도(peasant proprietorship)를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는 성경적 토지제도에 근거한 개혁으로 나중에 덴마크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후, 미국의 기독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이러한 성경적 토지제도를 근대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하여 1879년에 *Progress and Poverty: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The Remedy*(진보와 빈곤: 산업 불황의 원인과 부의 증가에 따라 빈곤도 증가하는 원인에 관한 탐구 및 그 해결책)이라는 책을 출판했다(김윤상 역, 1997).

또한, 그는 교육과 토지개혁을 연결하여, 폴케호이스콜레 운동이 농민들에게 역사, 문화, 자아의식을 심었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진 자유인으로 성장함으로 근대적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 결과, 덴마크는 자립하는 농민 국가가 되었고 19세기 후반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자영농 비중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농민 정당이 형성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Koch, 1945). 나아가 그는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폴케호이스콜레를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박토인 덴마크를 개혁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만든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그는 83세에 잠시 상원 의원도 되었으며 애국심, 민족정신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민 부흥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오늘날에도 “덴마크형 공동체주의”의 기저에는 이러한 그룬트비의 철학이 살아 있고 지금도 그는 덴마크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이연선, 2018).

7. 그룬트비의 유산

오연호는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과 지도력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는데 필자도 동의한다. 첫째,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힘이 있었다. 크리스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이웃 사랑은 자선 수준이 아니었음은 그가 폴크(Folke)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덴마크 사회에서는 폴케호이스콜레외에도 ‘폴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학교(Folkeskole), 교회(Folkekirten), 정당(Folkepart) 이름에도 들어있다. 결국, ‘폴케’는 아예 문화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그가 유행시킨 말로 그의 식대로 해석하면 ‘민족성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의미이다. 이웃을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것을 덴마크의 문화와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다. 이웃 사랑이 평등사회 구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그는 보았고 덴마크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이런 형제애와 평등의 가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그는 어린 시절에 노래 속에서 자라 감성이 풍부했다. 그는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가 되어 현재 덴마크 교회의 찬송가 중 그의 곡은 271곡이나 되며 그가 작사한 곡은 모두 1,400곡이 넘는다. 덴마크인들은 부활절, 성탄절, 결혼식, 장례식에서 그가 지은 노래를 부른다. 이처럼 그는 논리나 이론 못지않게 감성에서도 덴마크인들을 이끌며 영감을 불어 넣은 지도자였다.

셋째, 그에게는 열린 포용력이 있었다. 그는 애국자였지만 국수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1828년부터 매년 3개월씩 3년간 영국에 가서 문학을 공부했는데 이때 그는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와 영국의 자유주의 그리고 토론을 중시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

풍에 매료되어 자유로운 사고를 제약하는 어떤 것도 반대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았고 따라서 반대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했다.

넷째, 그는 애국적 정치가였다. 1807년 영국이 코펜하겐을 침공했을 때 그는 직접 저항군으로 참여했고 패전 이후 국가가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을 질타했다. 그의 애국심은 그를 목사에서 정치가로 변신시켜 절대 왕정을 종식한 제헌의회에 참여했으며 하원 의원을 두 차례나 지냈고, 나중에는 잠시 상원 의원도 되었다.

다섯째, 그에게는 소수와 신세를 감내하고 직언하는 선지자적 용기가 있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 했고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히 주장했다. 그는 주로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했기에 언제나 소수파였고 그가 만든 찬송가와 책은 오랫동안 판권을 당했으며 목회 자리를 찾기도 힘들었다. 이처럼 그의 세계관은 처음엔 무시당했으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대중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섯째, 그는 열정이 있었고 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폴케호이스콜레’라는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었듯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랬다. 그는 목회자이면서도 시민들이 ‘교회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목회자 신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주장이다. 덴마크 국민은 1848년 자유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는 1536년에 만들어진 루터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덴마크인은 국교인 루터교회에 다녀야 했는데 그는 이를 ‘종교탄압’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기독교란 자유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덴마크인도 국가교회에 속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국가교회 안에서도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런 그의 영향으로 덴마크에서는 정치권과 목회자가 개입하지 않은 자유로운 교회인 ‘시민 교회(Folkekirken)’들이 생겨났다. 그가 종교의 자유를 주창할 때는 처음엔 무시당했으나 어느새 그렇게 국민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오연호, 2014).

코펜하겐 북쪽에 있는 그룬트비 기념교회는 덴마크의 건축가 엔센-클린트(Peder Vilhelm Jensen-Klint)가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설계했고 네오 고딕 표현주의 양식의 노란 벽돌로 지어져 1940년에 완공되었다. 나이지리아의 그룬트비 국제학교(Grundtvig International Secondary School)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룬트비 포럼(Grundtvigsk Forum: grundtvigskforum.dk)은 코펜하겐 중심부의 바르토프에 있으며 1898년에 설립되었는데 그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아가 그가 세운 폴케호이스콜레는 유럽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한국에도 있다(www.jayuskole.net).

III. 결론

지금까지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대해 고찰하고, 그것이 덴마크 사회 변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금 덴마크에 넘치는 ‘행복’의 씨앗은 덴마크 역사상 최악의 절망기인 19세기에 뿌려졌다. 당시 덴마크라는 막막한 광야에 믿음으로 희망의 씨를 뿌렸던 선각자가 바로 그룬트

비였다. 그는 나라에 빠진 덴마크를 새롭게 하는 데 건인차 구실을 한 사회개혁가였다. 그는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세력에 대항해 사회 전반의 개혁을 외치는 한편 덴마크의 전설과 민담을 발굴해 덴마크인들에게 흐르던 민족 정서와 전통적 가치를 회복시켜 자존감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그는 성경적 역사 이해, 교회와 말씀에 대한 독창적 해석, 그리고 교육과 인간 이해를 토대로 덴마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 덴마크는 농노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이행하며, 교육 개혁, 토지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다.

그룬트비는 다른 저명한 덴마크인인 키르케고르 및 안데르센과 동시대에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잘 알려졌지만, 덴마크 사람에게 있어서 덴마크의 전반적인 삶, 문화 환경, 교회, 교육 시스템, 정치 문화, 분위기와 세계관 전반에 지워질 수 없는 가장 큰 영향을 남긴 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룬트비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그도 약점이 있었으며 때로는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는 종종 매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시와 거대한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영감이 떠오르면 그는 오랫동안 잠도 자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덴마크 역사상 그가 가장 저작을 많이 남긴 작가로 인정받는다. 그는 평생에 걸쳐 정치적 현안에서부터 영원에 대한 질문까지 인간의 존재를 건드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강연하고 글을 남겼다. 그의 세계관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남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나아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 하고,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질 가능성조차 소진되는 것처럼 보여(김형민, 2020),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새롭게 회복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적 차원에서 그룬트비에 의하여 시도된 폴케호이스콜레를 통해 대중을 일깨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폴케호이스콜레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과 자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였다. 덴마크의 이 학교는 시민의 힘으로 교육을 사회적 공통 자원으로 정착시킨 보기 드문 모범 사례다. 이는 한국의 입시 중심 교육체제와 대비되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청년 세대의 삶의 의미와 공동체 의식의 결핍 문제에 대안적 통찰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학교에 교사와 학생은 있으나 건강한 ‘상호작용’은 거의 없으며 수능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암기식 수업이 지배적이다. 학교는 있으나 진정한 교육은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제도적 교육이 민주주의의 성숙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하며 사교육에 간혀 한국은 이제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기가 힘든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떨어졌고 자살율은 세계 최고가 되어 장차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학업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청소년들은 지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룬트비가 제시했던 ‘삶을 위한 교육’을 우리는 대안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 또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건강한 학교 교육을 회복하여야 하며 입시 제도를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하루에 여러 과목을 테스트하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에 나누어

한 과목씩 치르게 함으로 학생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만의 재능을 살리고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토지와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덴마크의 토지개혁은 소수 지주 중심의 농노제를 해체하고 보편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성경적 경제관, 특히 희년 사상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룬트비의 세계관은 이미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제 강점기의 농촌계몽 운동, 이상촌 건설 운동도 그룬트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으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펼치면서 덴마크 농촌사회를 하나의 모델로 여겼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에서 과감히 토지개혁을 한번 시행한 것 또한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룬트비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지만 새마을 운동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었고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농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자유와 평등도 강조했다면 오늘의 한국 사회는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불행히도 여전히 부동산 투기로 인해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 그룬트비를 통해 이룬 덴마크의 사회 정의 실현과 공동체 안정이라는 성경적 원리와 가치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한국 사회 지도자들이 재발견하고 진지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주의와 시민 의식의 차원에서, 그룬트비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며 헌법 제정과 의회 정치 도입에 이바지하였다. 이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시민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덴마크와 한국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차이가 크지만, 두 나라 모두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 민주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교육 불평등, 사회 양극화, 민주주의 심화라는 과제를 성찰하는 데 유용한 비교 연구적 틀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그룬트비의 사상은 단순히 덴마크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사회 변혁의 원리로 구현한 사례이며, 이는 신앙이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학문과 제도를 규범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재구성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형민. (2020). ‘연대의 힘’, 절망의 나라에서 행복한 덴마크로. 시사IN 2020.06.04.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79
- 미츠루, 시미즈. 김정인, 김형수 역. (2014). **삶을 위한 학교: 덴마크 자유학교 폴케호이스콜레의 세계**. 녹색평론사.
- 신명직. (2012). 협동 공동체와 폴케호이스콜레, **석당논총** Vol. no. 53, 83-127.
- 오연호. (2014). 그룬트비 리더십, 행복사회 프레임 짜다, **오마이뉴스**. 2014. 03. 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4014
- 이연선. (2018). 메마른 땅 ‘덴마크’를 윤택하게 한 종교인 ‘니콜라이 그룬트비’. 2018.12.15.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44.
- 왕보경. (2021). 덴마크에 찾아온 행운 ‘그룬트비’, 메마른 땅을 행복으로 물들이다.
 2021.12.09. <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9>.
- 정해진. (2015). **그룬트비의 평민 교육사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최용준. (2025). 아브라함 카이퍼의 민주주의 사상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제30권 2호 (통권 103호), 63-83.
- Abrahamowitz, F. (2000), *Grundtvig Danmark til lykke*. København: Høst & Søn's Forlag.
- Allchin, A. M. (1997), *N.F.S. Grundtvig: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Århus: Århus University Press.
- Begtrup, H. (Ed.) (1909). *Grundtvigs udvalgte Skrifter*. (Vols. 1-10). København: Gyldendalske Boghandel.
- Bradley, S. A. J. (2006), “Grundtvig, Bede and the Testimony of Antiquity”, *Grundtvig Studier*, 7: 110-131.
- _____. (2008). *N.F.S. Grundtvig: A Life Recalled. An Anthology of Biographical Source-Texts*.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Broadbridge, E. (2011). *The School for Life. N.F.S. Grundtvig on Education for the People*. Trans. Jonas, U. & Warren, C. (Ed.)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_____. (2015). *Living Wellsprings. The Hymns, songs and Poems of N.F.S. Grundtvig*. Trans.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_____. (2018). *Human Comes First. The Christian Theology of N.F.S. Grundtvig*. Trans.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_____. (2019). *The Common Good. N.F.S. Grundtvig as Politician and Contemporary Historian*. Trans.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_____. (2021). *The Core of Learning: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N.F.S. Grundtvig*. Trans.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_____. (2023). *Denmark's Catalyst: The Life and Letters of N.F.S. Grundtvig*. Trans.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Dam, P. (1983). *Nikolaj Frederik Severin Grundtvig (1783-1872)*. Copenhagen: Royal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s and Cultural Relations Department. 김장생 역 (2009). **덴마크의 아버지 그룬트비**. 서울: 누멘.
- George, H. (1879). *Progress and Poverty: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The Remedy*. New York, NY: D. Appleton and Company.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서울: 비봉출

판사.

- Graves, D. (2010). "Grundtvig Sought a Transformed Denmark". Christianity.com.
<https://www.christianity.com/church/church-history/timeline/1801-1900/grundtvig-sought-a-transformed-denmark-11630563.html>
- Grundtvig, N. F. S. (1809). *Optrin af Kæmpelivets Undergang i Nord*. København: Schubothé.
- _____. (1812). *Kort Begreb af Verdens Krønike i Sammenhæng*. København: Andreas Seidelins Forlag.
- _____. (1814). *Roskilde-riim*. Kjøbenhavn: Andr. Seidelin.
- _____. (1816). *Bibelske Proedikener efter Tidens Tarv og Leilighed*. Kjøbenhavn: J. H. Schuboths Forlag.
- _____. (1820). *Bjowulfs Drape*. Kjøbenhavn: Andreas Seidelin.
- _____. (1825). *Kirkens Gienmæle*. København: Wahlske Boghandlings Forlag.
- _____. (1827-30). *Christelige Prædikener eller Søndags-Bog*. 3 bind. København: Wahlske Boghandlings Forlag.
- _____. (1836-37). *Sang-voerk til den Danske Kirke*. København: Wahlske Boghandels Forlag.
- _____. (1838). *Skolen for livet og Academiet i Soer borgerlig betragtet*.
- Hall, J. A., Korsgaard, O. & Pedersen, O. K. (2014). *Building the Nation: N.F.S. Grundtvig and Danish National Identity*, McGill-Queen's Press.
- Holm, A. (2018). *Grundtvig: En introduktion*. Aarhus: FILO.
- _____. (2018). "The Luther of Denmark - N.F.S. Grundtvig: reformer and hymnwriter", *Bulletin* Nr. 45/2017 of the Internationale Arbeitsgemeinschaft für Hymnologie. Tilburg: IAH (International Hymnology Society), 10-23.
- Johansen, S. (Ed.) (1948-54), *Bibliografi over N.F.S. Grundtvigs Skrifter 1 - 4*, København: Gyldendal. *Grundtvigs Sang-Værk* 1-6. Magnus Stevns (and others, editors). København: Det danske Forlag. 1948 - 64. *Poetiske Skrifter* 1 - 9. Udgivet af Svend Grundtvig (and others, editors). København: Karl Schönberg og Hyldendal. 1880 - 1930. *Udvalgte Skrifter* 1 - 10. Holger Begtrup (editor). København: Gyldendal. 1904 - 09. *Værker I Udvalg* 1 - 10. Hal Koch and Georg Christensen (eds). København: Gyldendal. 1940-46.
- Koch, H. (1945) *Hvad er demokrati?*, Copenhagen: Gyldendal.
- Reich, E. K. (2000), *Solskin og Lyn-Grundtvig og hans sang til livet*. København: Forlaget Vartov.
- Smith, M. K. (1999, 2007, 2011). 'N. F. S. Grundtvig, folk high schools and popular education', *The encyclopedia of pedagogy and informal education*.
[<https://infed.org/mobi/n-f-s-grundtvig-folk-high-schools-and-popular-education/>.
2026년 7월 1일 검색].
<http://www.jayuskole.net/플케호이스콜레/그룬트비> (2026년 7월 1일 검색)

니콜라이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Biblical Worldview and Work of N.F.S. Grundtvig

논문초록

본 논문은 덴마크를 깊이 있게 변화시킨 니콜라이 프레데릭 세베린 그룬트비(Nikolaj Frederik Severin Grundtvig, 1783 - 1872)의 성경적 세계관과 그의 변혁적 업적을 탐구한다.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저명한 작가, 신학자, 루터교 목사, 시인이자 성가 작곡가, 민족주의자, 역사학자, 민속학자, 정치인, 교육자, 철학자였다. 그의 다방면에 걸친 경력은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1837 - 1920)와 비교될 만하다. 사회적 기업가이자 개혁가로서, 그는 당시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던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선진적인 국가 중 하나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그는 19세기 후반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에 영감을 주었으며, 이는 그의 깊은 영성과 국문학에 관한 폭넓은 연구로 뒷받침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현대 덴마크 국민 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삶과 자유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며, 그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 민중 고등학교)를 제시하고, 수많은 일반 시민에게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했다. 나아가 그는 토지개혁을 통해 덴마크를 중세 농노사회에서 현대 시민사회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본 논문은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과 변혁적 업적을 검토하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실천을 재사유하도록 요청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그룬트비, 성경적 세계관, 폴케호이스콜레, 토지개혁, 자유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니콜라이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발표자	최용준
		논찬자 (소속)	유경상 (CTC 대표/ 평택대 기독교세계관 책임교수)

이 논문은 그룬트비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려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목회자, 신학자, 찬송가 작가, 교육개혁가, 민족운동가, 정치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한 종교인이 아니라, 교육, 역사, 민족 정체성, 정치, 토지 문제, 시민사회 형성에 이르기까지 덴마크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그룬트비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이 교회 안의 신앙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시민 형성을 통해 한 사회를 새롭게 빚어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논문이 지닌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그룬트비를 광의의 기독교세계관 모델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룬트비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사역은 기독교 신앙을 교회 안의 종교 행위나 개인 경건에 가두지 않고, 삶 전체와 사회 전체를 해석하고 형성하는 통합적 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핵심 정신을 선구적으로 보여 준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좁게는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로 시대와 사회를 해석하고, 신앙과 학문, 복음과 문화, 교회와 삶을 통합하려는 역사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기독교세계관의 모델을 카이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덴마크 사회를 깊이 변혁한 그룬트비를 새롭게 발굴하고 조명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특정 시대나 특정 이론의 산물로 축소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신앙을 삶 전체로 살아낸 다양한 인물과 사역의 흐름 안에서 이해하게 해 준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이 단순히 개념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정치, 경제,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임을 보여 준다.

이 점은 한국 기독교세계관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김교신 선생 역시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성경의 빛으로 해석하고, 신앙과 학문, 복음과 민족, 교회와 삶을 통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역사적 원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그룬트비를 조명한 이 논문은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자신의 역사적 자원을 더 넓게 발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둘째, 이 논문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그룬트비의 사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그룬트비는 덴마크가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쇠퇴와 민족적 각성의 부재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폴케호이스콜레였다.

그룬트비의 교육은 단순한 학교 교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세대만을 위한 교육도 아니었다. 그의 교육은 농민과 평민, 곧 시민 전체를 깨우는 전 세대 교육이었다. 그는 성경적, 루터적 신앙을 중심 뿌리로 삼고, 덴마크의 언어와 노래 역사와 이야기, 북유럽 서사를 통해 민족의 기억과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또한 폴케호이스콜레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말, 대화, 토론, 공동생활을 통해 사람을 형성하는 배움의 장이었다. 이런 교육적 각성은 개인의 변화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토지개혁, 협동조합, 민주주의, 시민사회 형성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그룬트비의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한 사회의 새로운 시민을 형성하는 교육이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오늘 한국 교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다음세대 프로그램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음세대뿐 아니라 부모, 교사, 청년, 성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전인적 교육이어야 한다.

이 논문을 읽으며 논찬자는 한국형 폴케호이스콜레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룬트비의 폴케호이스콜레가 덴마크의 folk를 시민적 주체로 형성했다면, 오늘 한국 교회에는 한국의 folk를 깨우는 전 세대 기독교세계관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 함석헌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난의 역사 속에 묻혀 있지만 생명을 품고 깨어나야 할 folk, 곧 “씨알”을 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적 『베오울프』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역사 서사와 고전적 이야기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와 같은 역사 해석, 김교신과 같은 신앙 인물의 삶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읽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주입식 신앙 교육을 넘어 대화와 토론, 공동체적 배움과 삶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씨알학교”와 같은 전 세대 기독교세계관 교육 플랫폼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논문은 한국 기독교세계관 운동과 한국 사회의 교육 방향을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문은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이 오늘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교육 불평등, 사회 양극화, 민주주의 심화의 과제를 성찰하게 하는 유용한 비교 연구의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한국 사회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불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룬트비의 사역은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거울이 된다.

무엇보다 이 논문의 중요한 통찰은 폴케호이스콜레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대안사회를 위한 대안학교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식 전달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삶과 자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장이었다. 시민을 계몽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 교육 모델이었다.

이 점은 한국의 대안교육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한국의 대안학교들 역시 입시 중심 교육체제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대안교육이 되기 어렵다. 대안학교가 참된 대안이 되려면, 입시 경쟁의 우회로가 아니라 삶과 자유를 위한 교육, 공동체적 삶, 시민적 책임, 사회 회복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 대안교육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사회적 책임을 해석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한국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단순한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과 시민 형성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한다.

이상의 의의를 전제로, 본 논문이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논문에서 말하는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명확히 규명되면 좋겠다. 그룬트비가 오늘날의 기독교세계관 운동 안에서 활동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성경적 세계관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루터적 신앙과 성례 중심의 교회관을 뜻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의 통합적 비전을 뜻하는지, 아니면 후대 연구자가 그의 사역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석틀인지 보다 명료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이 더 명료해진다면, 그룬트비를 단순히 기독교적 영향력을 가진 교육개혁가로 보는 것을 넘어, 그의 사상과 사역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룬트비의 영향이 오늘날 덴마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덴마크 사회 전체를 형성한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유산이 현재 덴마크 교회의 신앙적 생명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찬송, 예전, 교육 속의 역사적 유산으로 주로 작용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은 한국 교회에도 중요하다. 한 인물의 신앙과 세계관이 사회문화적 유산으로 남는 것과, 교회 안에서 살아 있는 신앙운동으로 지속되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룬트비의 신앙과 세계관이 덴마크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로 지속되었고, 반대로 왜 충분히 활발하게 계승되지 못했는지를 고찰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룬트비의 한국 수용사를 함께 검토한다면 논문의 한국적 함의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룬트비의 영향은 이미 한국 근현대의 농촌계몽운동, 기독교 사회교육, 대안교육의 흐름 속에서 일정하게 수용되고 변용된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룬트비의 사상이 한국 사회와 기독교교육 안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왜 한국에서 폴케호이스콜레적 교육운동이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는 일이다. 그룬트비의 사역이 한국에 소개되었음에도 왜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는지, 혹은 왜 지속 가능한 교육 플랫폼으로 정착하지 못했는지를 검토한다면,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을 오늘 한국 사회와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룬트비와 헨리 조지의 관계도 조금 더 정교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논문은 그룬트비의 사상이 토지개혁과 맞물려 소농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고, 이후 헨리 조지가 성경적 토지제도를 근대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연결이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인 사상적 계승 관계인지, 아니면 성경적 토지 정의라는 공통 문제의식 안에서 비교 가능한 병행적 관계인지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컨대, 이 논문은 그룬트비의 성경적 세계관을 더 정교하게 규명하고, 그 세계관이 덴마크

교회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논문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전 세대 기독교세계관 교육, 나아가 한국형 풀케호이스콜레와 같은 교육 플랫폼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